

1. ‘추측’과 ‘실제’는 다르다. 확인해라.

2. ‘온전한 자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귀하다.

본 문 시편 18편 25절

할렐루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추측과 실제는 다르다. 확인해라.’ 라는 주제와 두 번째로 ‘온전한 자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귀하다.’ 라는 주제로 성자의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주제는 두 개이지만, 말씀은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자께서 ‘깊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자기 정신 상태>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잘 듣고, 제대로 알고 깨닫고 행하는 만큼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

하나님과 성자와 말씀을 멀리하고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만사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두렵고 무섭다.

잠도, 술도, 담배도,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이성 사랑도 무섭다.

명예도, 권세도, 세상 부귀영화도, 물질도 알고 보면 무섭다.

왜 그럴까? 이것들로 인해 ‘사망’ 으로 가기 때문이다.”

- <잠> 때문에 생명길로 못 가고 사망길로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 <술, 담배>를 못 끊어서 생명길로 못 가고 사망길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를 셀 수 없습니다.

-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망길로 가는 자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 <사랑>이 좋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생명길로 못 가고 사망길로 가는 자들이 최고로 많습니다.

- <명예, 권세, 세상 부귀영화, 물질>도 무섭습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생명길로 가는 자보다 사망길로 가는 자가 비교도 안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 <종교>도 무섭습니다. 종교를 잘못 택하여 ‘우상 종교’와 ‘이단 종교’를 믿고 천국 생명길로 못 가고, 죽도록 의롭게 선하게 살면서 사망길로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는 마치 시장에서 ‘사과나무 묘목’을 사야 하는데,

사기꾼을 만나서 ‘잡나무 묘목’을 사다가 열심히 퇴비하고 땀 흘리며 가꾼 자와 같습니다.

‘잡나무 묘목’을 열심히 가꾸며 퇴비한다고 해서 ‘사과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상 종교’나 ‘이단 종교’를 택하여 의롭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세상은 알고 보면, 모두 무섭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이 안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성자가 보내어 <인생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만 안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오직 ‘진실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100% 천국 생명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우선권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지 않으면, 인생 ‘육신만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희망이 끝납니다.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삶의 희망’이 끊어져,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만도 못하게 됩니다.

★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의 이름만 알고 그럭저럭 믿으면서
‘구원받겠지.’ 하지 말아라.

<육신>이 죽은 후에 그제야 <영혼>이 어디 갔는지 확인하지 말고, <육신>이 살아 있을 때 100% 자기 구원을 확인하고, 믿고 가라.

육신이 살았을 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휴거됐는지 확인해라.
이 세상에서 확인해야 된다.
온전히 확인된 자만 구원받은 것이다.
고로 그 영혼이 ‘영생길, 천국길, 낙원길’로 가게 된다.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휴거됐는지 확인받은 자는 마치 운동경기에서 이긴 자가 녹화된 경기를 다시 보는 것과 같아서 “100% 이겼다.” 하고 마음이 놓인다.

지금껏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영이 생명길로 가는지,
사망길로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느냐.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휴거됐는지 며칠이면 확인한다.
무책임하게 살지 말아라.
그로 인해 ‘무지의 화’가 자기에게 영원토록 몰려온다.”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휴거됐는지 <꿈>에 ‘자기 혼’으로 확인하고, <생시>에 ‘자기 육의 생각과 행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되, ‘진짜 제대로 알고 믿어야’ 진짜 영생길을 가게 됩니다.

‘보통으로’ 믿고 행하거나, ‘제대로 모르고’ 믿고 행하면, 그 행위대로 그 단계로 구원이 결정됩니다.

세상 어떤 일을 두고도 제대로 모르고 해 보세요.

길을 닦든지, 집을 짓든지, 옷을 만들든지, 글을 배우든지, 언어를 배우든지, 만사의 하나하나를 제대로 모르고 해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제대로 모르고 보통으로 알고

믿고 사는 자들도 ‘그 결과’가 그같이 됩니다.

가령 한 목적지를 두고 가는 자가 길을 제대로 모르고
보통으로 간다면, 목적지까지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중간까지 가든지, 중간에서 조금 더 가든지 합니다.

길을 제대로 알고 전심을 다해서 완전히 가야 목적지까지 갑니다.

<목적>은 ‘목적지’까지 가야 이루어집니다.

구원도 ‘온전히 받은 자’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보통으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아직 ‘구원 미결 상태’입니다.

‘미결 상태’는 <구원 확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령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보통으로 사랑했다 합시다. 100% 사랑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보통으로 사랑하니 ‘사랑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희망’만 가지고 끝나게 됩니다.

<구원>도 <휴거>도 그러합니다.

‘온전한 자’만 구원받고 휴거됩니다.

영계에 가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영의 실체’는 전혀 다릅니다.

<잠시 쉬었다가>

★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구원>도 <휴거>도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도 장담하지 말아라.

‘자기 행실’로 지금! <구원>과 <휴거>를 확인해라.

누구를 믿고 사는가, 어떤 진리를 믿고 사는가,
어느 정도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와 마치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이듯
완전히 일체 되어 살고 있는가,
죄를 회개하여 사함 받았는가, 확인해라!” 하셨습니다. (*)

세상만사 모든 일들을 확인하면 알듯이, 자기 육도 혼도 영도 구원받고 휴
거됐는지 확인하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 * 월명동은 ‘사진’ 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과 허상’ 이 아니라 ‘실제’ 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구원과 휴거>도 확인하고, <그 어떤 것>도 확인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실제로 믿고 희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확인
된 것만 확실합니다.

- * <천국>은 확인하지 않아도 100% 믿어도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
자>도 100% 믿어도 됩니다.

‘태양’ 이 있듯, ‘지구’ 가 있듯, ‘달’ 이 있듯, ‘별들’ 이 있듯,
‘바다’ 가 있듯, ‘땅’ 이 있듯,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확실히 존재하
십니다.

매일 자기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은 매일 역사하십니다.

- * 그러나 <미완성된 인생들>은 다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 구원과 휴거>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막연히 “구원받았겠지. 휴거됐겠지.” 하지 말아요.
‘자기 행위’ 를 보고 짐작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 저마다 <확인할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봐야 됩니다.

과일나무를 심어 놓고 ‘때가 됐으니, 지금쯤 과일이 이만큼 컸겠지.’
짐작만 하지 말고, 과수원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합니다.
<생각>과 <실제>가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 선생이 어떤 사람을 처음으로 보기 전에, 사진도 안 보고 이야기만 듣고
추측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추측한 것’과 달랐습니다.

<구원>과 <휴거>도 ‘추측’과 ‘실제’는 다릅니다.

<세상만사 모든 것>을 누가 말하는 것만 믿고 엉성하게 확인하지 말고,
본인이 100% 확인해 봐야 됩니다.

* 자기 ‘추측과 예상’은 ‘실제’와 다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추측’과 ‘영계의 실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예 그런 일이 없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추측하고 ‘그럴 것이다.’ 하는 자가
지구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

<잠시 쉬었다가>

* 사람들은 항상 <앞날>을 좋게 생각하고 사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기 앞날>을 나쁘게 예상하면 안 좋으니, <자기 앞날>을 늘 좋게 추
측하고 예상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앞날>에 가서 보면 거의 좋지 않습니다.

‘자기 추측’과 ‘미래의 현실’은 다르듯,

‘육의 세계의 생각’과 ‘영의 세계의 실상’은 다릅니다. 확인한 것
만 똑같습니다.

* <미래>도 ‘현실’에서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현실의 삶’은 <미래>를 낳습니다.

→ 고로 ‘현실의 삶’을 통해서 <미래>가 100% 확인됩니다.

‘현실의 자기 생각과 행위’의 대가로 <미래>가 옵니다.

<현실>에서 ‘자기 육신’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어떻게 매일 믿고 사랑하며 사는지 보고, <미래>의 ‘자기 영혼의 삶’을 예상하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또 ‘보낸 자’를 통해서도 <미래>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또 ‘자기 혼’을 통해서도 <미래>를 예상하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 <과거>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잘 믿고 따르던 자들 중에서도 ‘신앙이 죽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고로 <과거>에 잘 믿었어도 <매일> 100% 잘 믿어야 됩니다. <과거>에 잘 믿었어도 가다가 중단하면, 과거에 잘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 육계에서 ‘육’을 보다가 영계에서 ‘혼과 영’을 보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보통으로 믿고 행하는 자는 그 마음과 행실 그대로 ‘영’이 형체를 이루고 있고, 그 마음과 행실 그대로 ‘혼’이 그 급에서 살고 있음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육’만 보고서는 잘 모릅니다. ‘혼’만 봐도 압니다.

*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 ‘현실에 예상하고 추측한 것’과 ‘앞날에 닥친 것’은 달랐습니다.

이와 같이 ‘육이 세상에서 살면서 추측한 것’과 ‘미래 영의 세계의 실상’은 다르니, 반드시 차원 높여서 확인하고, 진실로 배워서 알고, 속지 말고 기뻐하며 살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 ‘자기 추측’ 과 ‘실제’ 는 다릅니다.

사업하는 사람 100명 중의 10명도 추측한 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연성전 <월명동>은 다릅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도, 말씀을 가르친 후에도 <월명동>에 처음 가는 사람에게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 주지 말고, 추측만 하게 하고 데리고 가 보세요.

“월명동은 시골인데 선생님이 태어난 고향이니 한 번 가 보자.” 하고 데리고 가 보세요.

처음 <월명동>을 본 사람이 “내가 추측한 것과 달리 기대에 어긋났다.” 하는지, “추측한 것과 달리 이상적이다.” 하는지 보세요.

<성지 땅 월명동>만큼은 90% 이상 ‘추측한 것 이상’ 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 자녀도, 부인도, 남편도 ‘자기 추측’ 과는 다르니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면 다릅니다.

만사의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속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습니다.

다만 날마다 차원이 높아지고, 더 좋게 변화되기는 합니다.

시대에 따라 더 좋게 변화되고, 시대가 갈수록 마치 과일나무 크듯 변화되고, 과일이 제철을 맞아 더 커지고 아름다워지듯 변화됩니다.

<전환> 중요

*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모두 알고 보면 무섭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확인해 보면, 잘못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다.
무섭다. 확인해라.

육지에서 차를 타고 가든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든지 무섭다.
확인해라.

50세, 60세, 70세 넘어서까지 살 사람인데, 사고 나면 그 날 생이 끝난
다.

생명이 한 번 끝나면, 하나님도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살게 하지 못
하신다.

인생이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순리의 법>이기 때문이다.

고로 생명을 귀히 여기고, 늘 오갈 때 확인하고
극히 조심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와 생명의 주와 일체 되어 살아야 된다.”

인생,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달동네에서 고생만 하더라도 살아 있다
면,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고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세상의 재벌이나
권세자나 영웅 열사보다 낫습니다.

‘살아 있는 것’ 이 그리도 큼니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가 보낸 자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땅’에서 <마음 천국>이고, 살다 보면 <육신 환경 천
국>도 이루게 됩니다.

‘산 파리’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살아서 생명을 가진 것’이 그리도 큼니다.

‘적’도 살았을 때 적이고, ‘원수’도 살았을 때 원수입니다.

‘적’ 이고 ‘원수’ 고 죽으면 끝납니다.

<육의 생명>은 ‘메시아’ 나 ‘선지자’ 나 ‘그 어떤 큰 인물’ 이라도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말씀 마무리> 중요

*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이 생명권에서 산 자의 가치>는
‘천하를 혼자서 다 가지고 있는 것’ 보다도 큽니다.

<영이 생명권에서 산 자의 가치>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다가 영이 사망으로 간 영웅 열사, 명예 자, 권세자, 왕들 수십억 명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구원받고 휴거되어 천국으로 가는 자, 한 사람의 가치>는 <구원받고 휴 거되지 못하여 사망으로 가는 자 100억 명>보다 더 큽니다.

고로 ‘한 명의 생명’ 이 천국에 오면, 천국에서는 아주 큰 ‘환영 잔치’ 가 열립니다.

★ (중요)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

“ ‘온전한 자 한 명’ 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은 ‘온전한 자 한 명’ 을 찾으신다.

‘사랑의 대상체 신부로 온전히 만든 자’ 를 찾아 그 영이 <천국 황금 성>에 오면,

하나님은 <천국>을 만든 보람과 기쁨을 누리시고, <인간>과 <지구>를 창 조하신 보람과 기쁨을 누리신다.

<온전히 구원받고 휴거된 자, 한 사람의 가치>가 ‘지구 세상 천하를 다 가진 것’ 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몇 명이 구원받고 휴거되느냐’ 보다,
‘온전하게 구원받고 휴거되느냐’ 가 귀하다.
‘온전한 자 한 명’ 이 ‘천하’ 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 를 보고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누가 하나님이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신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할 ‘온전
한 자, 한 사람’ 이며,

누가 천하를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온전한 자, 한 사람’ 이
며,

누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을 영원히 받으면서 삼위의 영광과 기
쁨이 될 ‘온전한 자, 한 사람’ 이냐.

나 성자가 떠나기 전에 지금, 그를 찾고 있다.”

생명의 말씀 7번 읽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